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의 방안

이선경 명지대 교수¹⁾

이은형 한양대 박사과정²⁾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ek measures for media dance education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in the Post-COVID-19 Age. Entering an aging society, in South Korea, the population of the aged has further increased, and accordingly, patients with senile diseases have increased, too. The prevalence of Parkinson's disease, one of the big three senile diseases in the cerebral nervous system, increases as the population of the aged increases each year. Since the cause of the occurrence of Parkinson's disease has not yet been revealed, it is treated through medication, operative treatment, and exercise therapy for the suppression of its progress and the alleviation of its symptoms. Thus,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continuous medication and exercise therapy are very important.

As it has been reported that dance enhances the physical functions of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and has positive effects on the alleviation of depression and stress,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also actively participate in dance programs.

The occurrence of COVID-19 has changed many parts of human life. Untact methods such as telecommuting, remote learning, and online classes, etc. have been revitalized, and it is expected that in the Post-COVID-19 Age after the end of COVID-19 in the future, the online methods utilizing media will further be revitalized. Thus, it is judged tha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measures utilizing media also in dance education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1) 이은형(Eun-Hyoung Lee)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silverlee91@naver.com

2) 이선경(Sun-kyoung Lee) 명지대학교 조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명지대학교 미래관 3409호, iamlsk@mju.ac.kr

Therefore, this study presented three directions for seeking measures for dance education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and positive effects expected accordingly.

Keywords: Post-COVID-19,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Dance for Parkinson's disease, Dance education for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Media dance educ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다. 학교, 회사, 각종 행사와 모임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다양한 곳에서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 되어 키오스크, 온라인 수업, 원격수업,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고 있다. 무용은 현장성이 중요시되는 분야 중 하나로 특히 실기교육의 경우 더욱 세밀하고 다양한 신체의 움직임을 습득하고 움직임을 통한 관계형성 및 공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 이후 무용교육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학교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 밖 기관에서 행해지는 무용교육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었으며 학교 밖 기관에서 대면이 아닌 미디어를 통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모든 면에서 취약함을 드러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무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재 무용계가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간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관심과 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령자는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5년에는 657만명에서 2019년에는 768만 5천명으로 집계되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14.9%에서 2025년에는 20.3%로 2067년에는 46.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¹⁾ 이러한 고령화 사회로 인한 고령자의 증가는 노인성 질환의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게 하였다.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 신경계 질환으로 꼽히는데 보건의료

1) 통계청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 (검색일, 2020.11.09.).

빅데이터개방시스템²⁾에 따르면 파킨슨 환자는 2015년 10만 3574명에서 2019년 12만 5607명으로 4년 동안 21%가 증가하여 노인인구의 증가는 파킨슨병 발생률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무용은 음악의 리듬을 통해 다양한 신체 움직임을 하기 때문에 파킨슨 환자에게 좋은 신체활동으로 연구되고 있다. Hackney와 Earhart에 따르면 무용이 파킨슨 환자의 균형과 보행 및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³⁾ 파킨슨 병 환자에게 아르헨티나 탱고 수업을 실시한 결과 파킨슨 환자의 균형, 낙상 및 보행능력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⁴⁾ McNeely 등의 연구에서도 댄스 프로그램이 파킨슨 환자의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켜 부정적 감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춤을 통해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⁵⁾ 즉, 무용은 파킨슨 환자에게 신체적·인지적·정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저하된 기능을 향상 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국내의 파킨슨 환자를 위한 전문 무용프로그램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인 'Dance for P.D'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마크모리스댄스 그룹(Mark Morris Dance Group)과 브룩클린 파킨슨 재단(Brooklyn Parkinson Group)이 함께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는 2017년 이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하여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전국으로 강사를 파견하여 현재 서울,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매주 1회 서울 혜화동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파킨슨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무용 프로그램을 통한 파킨슨 병의 증상 호전이나 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및 방역당국의 권고로 인하여 대면수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그 대안으로 미디어 수업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교육, 재택근무, 화상수업 등 온라인을 통한 생활 방식이

2)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IlnsInfo.do>, (검색일, 2020.11.09)

3) Effects of dance on balance and gait in severe Parkinson disease: A case study, Madeldine E. Hackney, Gammon M. Earhart,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009.

4) A Study on the Effects of Argentine Tango as a Form of Partnered Dance for those with Parkinson Disease and the Healthy Elderly, Madeleine E. Hackney, Svetlana Kantorovich & Gammon M. Earhart, American Journal of Dance Therapy, 2007.

5) Impacts of dance on non-motor symptoms,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in Parkinson disease and healthy older adults, M.E.McNeely, R.P.Duncan, G.M.Earhart, Maturitas, 2015.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다방면으로 더욱 확대되어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러한 시대상은 완벽하게 구성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준비시간을 갖지 못한 채 미디어 무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 원격수업, 줌(Zoom), 행아웃(Hangouts) 등과 같은 일방향 및 양방향의 미디어를 무용과 접목하여 새로운 방식의 미디어 무용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 프로그램도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방안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디어 무용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 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파킨슨병

파킨슨병과 치매 그리고 뇌졸중은 대표적인 3대 노인성 뇌 신경계 질환으로 1817년 영국의 James Parkinson에 의해 학계에 처음 보고되어 알려지게 되었다.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처럼 신경 퇴행성 질환으로 중뇌의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인 도파민을 만드는 세포가 점점 줄어들면서 발생하며 진전, 강직, 서동증 등의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⁶⁾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으로는 손발의 떨림, 보행 장애, 느린 동작, 경직, 자세 불안정, 동작동결 등의 운동장애이다. 또한,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1~1.5%가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킨슨병은 명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명확한 치료제가 없으며 천천히 진행되는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다. 파킨슨병은 중뇌에 있는 흑색질의 소실로 인하여 도파민이 감소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도파민은 뇌신경세포의 흥분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도파민의 부족은 움직임 조절에 대한 능력을 잃게 된다.

유전적인 연관성이나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발생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통해 질병의 진행 속도를 저하시키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기본적

6) 뇌박사 박주홍의 파킨슨병 이야기, 성안북스, P21.

인 치료방법이다. 환자에 따라 수술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약물치료가 기본적 치료방법이며 이와 더불어 운동치료나 재활치료를 함께 병행한다. 그러므로 파킨슨 환자들은 병의 진행을 늦추주고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약물치료나 수술치료 그리고 운동치료법에 의존하고 있다.

2. 파킨슨병과 무용교육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제약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가 춤을 출 수 있을까. 파킨슨병과 무용을 연구해온 많은 연구자들은 파킨슨 환자도 얼마든지 춤을 출 수 있으며 춤이 파킨슨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역량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무용 치료 협회(American Dance Therapy Association)는 ‘무용치료’를 무용을 통해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및 신체적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운동 및 정신치료라고 정의하고 있다.⁷⁾ 춤을 통해 환자들은 인지력과 자기효능감이 향상되고 우울증이 감소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는다.

무용은 파킨슨 환자의 신체기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좋은 신체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파킨슨병과 무용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Hackney 등에 따르면 탱고수업이 파킨슨 환자의 균형, 지구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연구되었다.⁸⁾ Hashimoto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춤이 파킨슨 환자의 운동기능과 인지기능 및 정신 증상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⁹⁾ Karokna 등의 연구에서도 파킨슨병 환자에게 12주의 댄스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균형 및 보행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파킨슨병과 무용에 대한 김무현의 연구에서도 무용이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능력 및 균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¹⁾ 즉, 무용이 파킨슨 환자에게

7) 무용 교육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및 균형에 미치는 영향—Dance for PD를 기반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김무현, 2019. p12.

8) Effects of dance on balance and gait in severe Parkinson disease: A case study, Madeleine E. Hackney, Gammon M. Earhart,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2010.

9) Effects of dance on motor functions, cognitive functions, and mental symptoms of Parkinson's disease: A quasi-randomized pilot trial, Hiroko Hashimoto, Shinichi Takabatake, Hideki Miyaguchic, Hajime Nakanishi, Yasuo Naitou,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15.

10) Improvements in balance and gait speed after a 12 week dance intervention for Parkinson's disease, Karolina A. Bearss, Katherine C. McDonald, Rachel J. Bar, Joseph F. X. DeSouza, Advances in Integrative Medicine, 2017.

11) 무용 교육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및 균형에 미치는 영향—Dance for PD를 기반으로—, 석사학위논문,

신체적 기능과 더불어 인지기능 및 정신 증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무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현대무용단인 마크모리스 댄스 그룹(Mark Morris Dance Group)은 2001년 브룩클린 파킨슨 그룹(Brooklyn Parkinson Group)과 함께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무용 프로그램인 'Dance for PD'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이 프로그램은 뉴욕 시내 8개 지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무용전공자들을 대상으로 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하여 20개국 100개 이상의 지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다.¹²⁾ 영국의 경우 영국 국립 발레단이 마크모리스의 'Dance for PD'로부터 영감을 받아 'Dance for Parkinson's'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년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클래식 발레와 컨템포러리 레퍼토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국립 발레단은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을 응용한 파킨슨 환자들을 위한 12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춤이 파킨슨병 환자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 결과 춤이 척추주위의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자세를 바르게 하여 안정성을 갖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환자들의 이동능력을 향상시켜 준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를 통해 춤이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증상완화의 치유적 효과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¹³⁾

이렇듯 무용이 가진 긍정적 효과는 파킨슨병 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파킨슨병 환자의 균형감 발달, 근육이완, 신체기능의 향상, 자신감 회복, 스트레스 감소, 표현력 향상 등의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미디어 무용교육의 현황

미디어의 발달은 교육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학교 중심의 교육이 인터넷 기반의 원격 교육으로 발달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이러닝(e-learning)', '웹 기반 학습', '온라인미디어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이 확산되는 현재 디지털을 통한 교육은 더욱 부각되는 추세이다.

무용교육 현장에서도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 대학 및 해외 오픈교육자료와 연계하여 강의자료 정보를 공유하는 KOCW(Korea Open Course Ware)는

세종대학교 대학원, 김무현, 2019.

12)환자에서 댄서로, 창의성을 춤추기, 무용예술학연구, 제환정, 2019.

13)환자에서 댄서로, 창의성을 춤추기, 무용예술학연구, 제환정, 2019.

사용자들이 대학의 이러닝 콘텐츠와 강의자료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와 비슷한 플랫폼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웹 기반으로 구성된 강좌를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한 K-MOOC(Korean-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있다. 이 플랫폼 역시 국내 대학의 다양한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¹⁴⁾

또한 전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무용관련 교육 콘텐츠들이 업로드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 줌(Zoom), 행아웃(Hangouts), 팀즈(Teams) 등을 통해 일방향 및 양방향의 다양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들이 운영되고 있다¹⁵⁾

대부분의 온라인 방식을 통한 무용수업은 주로 학교나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무용 프로그램의 현장 진행이 어려워진 학교 이외의 복지관이나 여러 센터 등에서도 미디어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봉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치매어르신들의 무용 수업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유하고 있으며 구립 신내 노인종합복지관은 한국무용 강의를 온라인 영상 강의로 진행하고 있다.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무용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천시 청미노인종합복지관과 강동구립 해공노인복지관, 강감찬 관악복지관, 성동구립 사근동노인복지센터,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등 여러 기관에서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무용 강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용인시에 있는 용인시치인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단된 무용 수업을 줌(Zoom)을 통해 원격 수업으로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전국의 많은 복지관, 센터 등에서 중단된 수업을 유튜브 채널 개설, 줌(Zoom)을 통한 화상 수업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미디어 무용교육 방식은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고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III.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의 방향

미디어를 활용한 무용교육은 학교 및 대학의 교육현장에서는 이미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14) 국내 온라인 공개 무용강좌 현황 연구, 이지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018.

15) 교육대학 온라인 무용수업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연구-신체표현활동 강의를 중심으로-. 유미희, 무용예술학 연구, 2020.

있으며 학교 교육현장을 넘어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촉진된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무용수업은 날로 확장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미디어 무용교육을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파킨슨 환자를 위한 온라인 미디어 무용교육의 방향에 대한 3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파킨슨 환자를 위한 온라인 미디어 무용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고 여러 동영상 공유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여 미디어 무용 교육을 활성화 한다. 파킨슨 환자의 경우 일반인과 다른 신체적 제약과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어 무용 수업을 진행할 때 이들에게 맞는 레벨과 신체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움직임을 발전시켜 진행해야 한다. 또한 넘어짐과 같은 위험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파킨슨 환자에 맞춘 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파킨슨 환자들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고 영상을 따라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질병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둘째, 파킨슨 환자가 스스로 수업 전 가정에서 연습할 수 있는 수업과 연계된 사전 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환자들이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무용 스텝을 익힐 수 있는 움직임, 손과 발이 함께 움직이는 동작 연습 등 수업과 연계된 움직임을 연습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한다면 강사와 함께 현장에서 진행되는 수업에서는 영상을 통해 접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현장 수업 시 다양한 움직임을 시도할 때 사전 연습이 많은 도움을 주어 좀 더 다양하고 확장된 움직임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파킨슨 환자는 동작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스스로 자신감을 얻기도 하며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켜 적극적으로 무용 움직임에 참여하게 되고 꾸준히 자신의 질병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원격수업을 진행하여 보다 많은 환자들이 무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파킨슨 환자를 위한 원격 수업이 진행된다면 다양한 지역에 있는 환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것이 조심스러워진 이때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환자들이 무용을 통해 자신의 질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 우울감 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파킨슨 환자를 고려하여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의 병원이나

기관 혹은 파킨슨 협회 등과 협약을 맺어 이러한 기관을 통해 등록된 파킨슨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수업을 홍보하고 참여 링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방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비하여 파킨슨 환우들을 위한 무용 교육 프로그램 또한 미디어 교육의 가능성 방향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 가능성을 통해 미디어를 활용한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 프로그램의 방안을 구축한다면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의 더욱 활성화 되고 파킨슨 환자를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무용전공자들의 향후 진로와 직업적인 부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되었다. 움직임을 통한 신체기능의 향상, 표현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성취감, 자신감 회복 등의 무용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파킨슨 환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파킨슨 환자들은 질병을 관리할 치료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다가올 코로나19 이후 시대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더욱 확산되고 인간의 생활 여러 곳에 적용되면서 미디어 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미디어 무용 교육의 방향과 그에 따른 방안 모색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킨슨 환자를 위한 온라인 미디어 무용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작하여 여러 동영상 공유플랫폼을 통해 공유하여 미디어 무용 교육을 활성화 한다.

둘째, 파킨슨 환자가 스스로 수업 전 가정에서 연습할 수 있는 수업과 연계된 사전 영상 자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

셋째, 온라인 미디어를 통한 원격수업을 진행하여 보다 더 많은 환자들이 무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 교육 방안 구축은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 시에도 무용 프로그램이 원격수업을 통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 무용인에 대한 교육과

무용전공자의 향후 직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 교육의 개발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킨슨 환자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용 교육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행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디어 무용 교육 프로그램이 파킨슨 환자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고 환자들의 참여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적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박주홍(2020), 뇌박사 박주홍의 파킨슨병 이야기, 성안북스.
- 김무현(2019), “무용 교육프로그램이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 및 균형에 미치는 영향 -Dance for PD를 기반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미희(2020), “교육대학 온라인 무용수업경험에 대한 자문화기술지연구-신체표현활동 강의를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 이지혜(2018), “국내 온라인 공개 무용강좌 현황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 채환정(2019), “환자에서 댄서로, 창의성으로 춤추기”, 무용예술학연구.
- Madeldine E. Hackney, Gammon M. Earhart(2009), “Effects of dance on balance and gait in severe Parkinson disease: A case stud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 Madeleine E. Hackney, Svetlana Kantorovich & Gammon M. Earhart(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Argentine Tango as a Form of Partnered Dance for those with Parkinson Disease and the Healthy Elderly”, American Journal of Dance Therapy.
- M.E.McNeely, R.P.Duncan(2015), “Impacts of dance on non-motor symptoms,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in Parkinson disease and healthy older adults”, G.M.Earhart, Maturitas.
- Hiroko Hashimoto, Shinichi Takabatake, Hideki Miyaguchic, Hajime Nakanishi, Yasuo Naitou(2015), “Effects of dance on motor functions, cognitive functions, and mental symptoms of Parkinson’s disease: A quasi-randomized pilot trial”,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 Madeleine E. Hackney, Gammon M. Earhart(2010), “Effects of dance on balance and gait in severe Parkinson disease: A case study”,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 Karolina A.Bearss, Katherine C.McDonald, Rachel J.Bar, Joseph F.X.DeSouza(2017), “Improvements in balance and gait speed after a 12 week dance intervention for Parkinson’s disease”, Advances in Integrative Medicine.
- 통계청홈페이지,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
-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http://opendata.hira.or.kr/op/opc/olapMfrnIntrsIInsInfo.do>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의 방안**
**Measures for Media Dance Education for Patients with Parkinson' s
Disease in the Post-COVID-19 Age**

이선경 명지대 교수
이은형 한양대 박사과정

논문초록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되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는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질환자도 함께 증가하였다. 3대 노인성 뇌 신경계 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 역시 매년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파킨슨병은 발병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아 질병의 진행 억제와 증상완화를 위한 약물치료와 수술치료, 그리고 운동치료를 통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파킨슨 환자들에게 꾸준한 약물치료와 운동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무용은 파킨슨 환자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파킨슨병 환자들 역시 무용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은 인간 생활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다. 재택근무, 원격수업,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 되었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활용 방식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따라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교육 또한 미디어를 활용한 방안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킨슨 환자를 위한 무용교육의 방안 모색을 위해 세 가지의 방향과 그로 인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포스트 코로나, 파킨슨 환자, 파킨슨 무용, 파킨슨 환자 무용교육, 미디어 무용교육

논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 무용교육의 방안	발표자	이선경, 이은형
		논찬자 (소속)	이주희 (세종대학교)

본 연구는 파킨슨 환자를 위한 미디어무용교육의 방향 모색해 보기 위해 연구된 논문입니다. 과학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불가능한 노인성 질환의 증가는 21세기의 중요한 연구영역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는 완치가 불가능한 파킨슨 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신체활동으로서의 무용의 역할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Covid-19시대의 도래로 인한 미디어 교육의 현상이 일반인들뿐만이 아닌 질병이 있는 이들에게 절실한 상황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논문에 제시된 무용교육의 현황은 외국의 2가지 사례에 불과하며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현황은 국내의 사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파킨슨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무용교육에 관한 사례제시가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미디어의 접근이 어려운 노인계층이라는 점과 보조자의 도움없이 신체활동이 어려운 질병이 있는 중증 환자라는 점을 깊이있게 고려한 논리적인 연구 접근을 시도한다면 Covid-19 상황 속 어려움에 직면한 파킨슨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